

變身모티브의 小說的 受容樣相과 그 意味

鄭 相 珍*

목 차

I. 序 論	1. 遁甲모티브
II. 變身모티브의 樣相과 類型	2. 脫殼모티브
1. 모티브의 樣相	3. 捉兇모티브
2. 類型的 分類	4. 變生모티브
III. 類型別 敘事的 機能과 意味	IV 結 論

I. 序 論

小說文學이 인간적 갈등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傳統的 敘事形態인 靑鮮朝小說에서는 갈등 해결의 수단 내지 방편을 神異素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는 갖가지 인물의 신이적 행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본고의 논의의 核인 變身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變身이라고 하였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存在樣態¹⁾가 轉移되는 것과 인물을 싸고 도는 狀況이나 心理 등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前者가 形態的 變身이

* 부산외국어대학 국문학과 교수

1) 存在樣態란 현상적 존재의 외형적 모습을 의미한다.

라면 後者は 質的, 精神的 變化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이나 심리적 變化를 뜻하는 後者の 개념은 變化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云謂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變身の 객관적 기준 설정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敘事樣式 중에 變身을 수반하지 않은 작품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變身은 變身主體者의²⁾ 외형의 일부 또는 전부가 自力이나 他力에 의하여 變化하는 外形的(身體的) 變化를 의미한다.³⁾

變身은 合理的이고 經驗的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과학적 사고에서는 일종의 笑話로 취급되면서 屢전될 수 밖에 없는 듯하지만 발생 초기에는 실상의 일로 간주되었고 古代人들 또한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본다. 즉 原始人들은 자연의 순환과 거기에 따른 宇宙萬物의 變化樣相을 보면서 막연하나마 모든 現象的 存在들은 固定不變의 것이 아니라 相互轉身을 거듭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變化까지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原始的 思考(바탕)에서 비롯된 이러한 變身觀念은 새로운 가능성을 創出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편승하여 東西를 막론하고 수많은 變身譚 나게 되었다고 상정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幻想的인 꿈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동경하면서 現재를 살고 있지만 意向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놓인 宿命的 苦難을 해결하려는 경우거나, 또는 자기의 理想實現의 慾求가 불가능할 때 이를 해결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異蹟을 바라거나 超越的인 힘을

2) 變身主體者란 變身을 직접 행하는 主體를 의미한다. 따라서 無生物인 變身할 경우, 그 무생물이 바로 變身主體者가 된다.

3) 變身の 개념은 說話의 類型分類와 變身說話 등의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張德順, 生時든 죽어서든 다른 形態로 變化하는 것,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 서울大出版部, 1981), p. 34.
- 曹喜雄, 人間·動物·異界人·精靈들의 脫身·遁甲과 같은 變形譚, 韓國說話의 類型의 研究(서울: 韓國研究院, 1983), p. 22.
- 李相日, 自意나 他意에 의해서 어떤 원형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 變身說話의 理論과 展開(成均館大 大學院, 1978), pp. 35~36.
- 金美蘭,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거나, 정신적인 變化에 있어서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급격한 變化를 이루는 것, 古代小說과 變身(서울: 正音文化社, 1984), p. 9.
- J. E. Ciriote, 한 존재 또는 한 종속 species이 다른 형태로 變化되는 일종의 逆轉的 象徵體系 Symbol of Inversion, *Dictionary of Symbol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62), p. 199.

빌려고 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試練克服이나 慾求示顯의 수단 내지 方法으로 변신을 관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변신은 인간의 超越意志나 更新意志의 所産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原初思惟의 敘事的 表白이라고 할 수 있는 神話를 비롯하여 傳說, 民譚 등에 변신 장면이 다량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文學의 原型 Archetype이 되었는가 하면, 文學의 生素材 중의 하나로 朝鮮朝小說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변신은 소재상의 敘事的 傳統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

더우기 朝鮮朝小說은 현대소설처럼 독자적인 사건과 거기에 따른 개성적인 인물 창조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인물들의 超越의인 행위를 중심으로 한 集團의인 삶의 유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 構成 또한 우연의 연속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작가나 독자의 小說觀 내지 藝術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예술은 예술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사고를 은연중 지니면서⁵⁾, 인간이 지닌 욕구의 간접적 示顯形式으로 소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작중 인물들의 행위나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散見되고 있는 變身모티브들은 이런 측면에서 그 受容의 當爲性은 물론, 작품의 主題를 이끌어가는 도구적 장치로서 敘事的 機能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어느 層位보다도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先學들의 研究對象이 되었으며, 또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낳기도 하였다.⁶⁾

본고에서는 朝鮮朝小說에 수용된 身體(형태)의 변신모티브를 抽出하여,

4) N. Frye는 “그(로망스의 영웅)가 행동하는 세계에서는 일상의 자연법칙이 일부 정지되어 있다. 즉, 우리들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용기와 인내의 기적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일단 로망스의 세계가 전체되면, 요술부리는 무기라든가,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라든가, 무서운 도깨비나 마녀라든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부적 등도 개연성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화의 세계로부터 나와 전설·민담·옛이야기(msaa” rchen), 기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유래되는 문학작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譯, 批評의 解剖(서울: 한길사, 1983), p. 50]

5) 黃溟江 : 朝鮮王朝小說研究(서울, 檀國大出版部, 1981), p. 99.

6) 說話에서는 李相日(앞의 논문), 小說에서 金美蘭(앞의 책)을 들 수 있다.

- 가. 모티브의 樣相을 살펴본 다음, 그것을 類型化하고,
- 나. 類型別로 각 모티브가 갖는 敘事的 機能 및 意味를 총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II. 變身모티브의 樣相 및 類型

변신모티브가 수용된 작품들을 보면, 敘事構造上 變身場面の 위치가 앞, 중간, 뒤 등 제각기 다르며, 變身主體者도 主人公인 경우, 敵對者인 경우, 補助者인 경우 등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自意的으로 변신하는 他意的인 변신 이든 변신주체자의 변신행태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등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며, 變身體系, 變身程度 등에서도 여러 양상을 취하고 있다.

우선 變身主體者의 敘事構造上의 役割을 중심으로 하며 작품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⁷⁾

1. 變身모티브의 樣相

먼저 변신모티브들을 抽出하여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金圓傳

- ① 모양이둥글어것흔겹고속은빚치얼웅얼웅한것이눈도코도없고마치슈막모양 갖튼지라...중략...남두성아네적익이다친하였시미날을보니샤너쓰고잇는보 룰벗기고오라호시미...중략...원이보룰벗고보니방중의아무것도업고...⁹⁾
- ② 죽시몸을흔드러면호여저근쥬먹만호슈막이되저놀¹⁰⁾

金鈴傳

- ③ (막씨) 십삭이밋치는산점이잇서초막의업디엇더니희복호고도라보니아히는 아니오금방을갖튼지라...중략...(仙官)이금령을어로만지니방울이터지며일

7) 田禹治傳은 주인공, 보조자, 적대자 등이 제 각기 변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8) 각 모티브 앞에 붙인 일련번호는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련 번호만을 제시할 것이다.

9) 金東旭編, 古小說板刻本全集 四 (羅孫書屋刊), pp. 108~109.

10) 金東旭編, (앞의 책), p. 115.

위선너나오는지라¹¹⁾

金牛太子傳

- ④ 첫시일일은아하먹든암소가 점점티가부르더니염을드고 혼숨아지름나호니그 송아지를...¹²⁾
- ⑤ (일위선관) 약을먹으라 하고보를벗기고공중으로올나가니문득금송아지변하 야일기미남 주되엇스니¹³⁾

朴氏傳

- ⑥ 처시흔연이소저의손을잡고당에올나남향하 여소저를안치고화연소왈금년은 너의죄악이진헛다 하고진언을일그며광슈를드러소저의얼굴을가라치니그런 흉면괴질이일시에버서지고고옥경안의묘한결식이되거늘¹⁴⁾

三者願從記

- ⑦ 그오의평생심수를그르게하고모로옥황상제벌을 누리오사금사망을씩워...중략...선관이드로쳐민망이너여진언을두어번음염하더니문득그허물을벗고사 람이되엇으미...중략...제머글수의의일기더하물욕심하야...중략...도로괴허 물을씩워잇던곳으로보이니¹⁵⁾

田禹治傳

- ⑧ 모든나졸이일시에다라드러털삭으로동혀매고전우좌우로...중략...토포관이 대경하여보니훈낫자나무를매엿거늘¹⁶⁾
- ⑨ 병을깨쳐여러조각이나타아무것도업고병조각이뛰어전에나아가¹⁷⁾
- ⑩ 양문더이거름을터하 여얼굴을보거늘 우치변하 여왕개되어면경압헤안젓거늘¹⁸⁾
- ⑪ 운심이마참소피홀야 하고옷을글을고본즉하문이편편하야...중략...창기중데 일고온계집의소문이간디업고문득배우에궁기낫거늘¹⁹⁾
- ⑫ 죽자물걸고보니...중략...열시가진동물 툷그렸거늘 시험하여보리라 하고고직 아부르니그동 주디답하고나오논지라²⁰⁾
- ⑬ 스스로하사 하신임금을가지고몸을흔들어변하 여술기되여가달산을 바라고가 니라²¹⁾

11) 金東旭編, (앞의 책), pp. 284~291.

12) 活字本 古小說全集一,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4), p. 404.

13) 앞의 책, p. 423.

14) 活字本, 古典小說 (서울:民族文化社 영인, 1983), p. 26.

15) 金東旭編, (앞의 책, 一), p. 16.

16) 趙東一, 전우치전(시인사, 1983), p. 20.

17) 앞의 책, p. 21.

18) 앞의 책, p. 24.

19) 앞의 책, p. 30.

20) 앞의 책, p. 46.

21) 앞의 책, p. 46.

- ⑭ 죽시우치일계를싱각고나못입을홀터신병을문들어창검을들리고괴치를벌여진을널우고²²⁾
- ⑮ 우치몸을변혀여왕연회되어추종을거느리고바로왕연회집에가니²³⁾
- ⑯ 혼변뽕고진언을넘혀니왕연회문득변혀여꼬리아름가진여회되는지라²⁴⁾
- ⑰ 문득선낭이술병을들고나오고동죽는상을가지고나오니계인이죽세이보니그림이화혀여사람이되어병을기우러잔에²⁵⁾
- ⑱ 문득민시변혀여대망이되어방애가득²⁶⁾
- ⑲ 환형단을먹인후진언을넘하니덩과부의모양과힐호차작업시되는지라²⁷⁾
- ⑳ 우치한번시험코저혀여진언을넘혀니룡담의손관이변혀여쇠머리되거늘룡담이노하여또진언을넘혀니우치손관이변혀여범의머리되는지라우치또진언을넘혀니룡담의관이변혀여빅룡이되어공중에올라안기를피우거늘룡담이또진언을넘혀니우치관이변혀야청룡되어구름을헛치고안기를발혀야쌍룡이서로싸와청룡이빅룡을이겨지못혀고동남으로다라가거늘²⁸⁾
- ㉑ 우치즉시맛아가지고히동청보라매되어공중에올라호만으로그가더니²⁹⁾
- ㉒ 우치착급하여히동청이되어다라나니화담이수리되어겨름애우치변혀여갈벌되어닷더니화담이변혀여청사자되어들어업지르고³⁰⁾

洪吉童傳

- ㉓ 그디등은나의지조뽕보라혀고즉시초인일곱을민드러진언을넘혀고혼빅을벗치니일곱길동이일시의팔을뽑더니크게소리혀고훈곳의모다난만이슈작혀니어늬것이정길동인지아지못할지라³¹⁾

荆山白玉

- ㉔ 일야는초옥이만신이불갓호며비록알논더업스느침셔의누어일지못혀니왕공부부근심혀더니문득미암이허물벗듯협상을벗고진면을혀니용모의고음이중추망월이치운을헤치는듯³²⁾

權益重傳

- ㉕ 허수아비틀만든렛스디일흠은우이요얼끝은익중과갓치만던지라우인이익중의집을차차가니승상과부인이머위낭자익중만너져만겨혀고서쪽안부뽕못겨

22) 앞의 책, p. 48.

23) 앞의 책, p. 60.

24) 앞의 책, p. 62.

25) 앞의 책, p. 62.

26) 앞의 책, p. 70.

27) 앞의 책, p. 80.

28) 앞의 책, p. 84.

29) 앞의 책, p. 86.

30) 앞의 책, p. 86.

31) 鄭鈺東 校註, 홍길동전, 洪吉童傳研究(민족문화사, 1983), p. 228.

32) 舊活字本 小說叢書I, (民族文化社, 1984), p. 33.

늘우인이대강대답하고침익중오기를기다리더라³³⁾

雍固執傳

- ㉔ 별로괴이한괴를내어짚한못내어놓고허인을맨들어놓고보니분명한옹고집이라. 부작을써붙이니놈의환상보소. 말머리주거턱이할일없는옹갈래라³⁴⁾

李華傳

- ㉕ 손으로모든당수를밀치고경전의드러가니황데귀비와한가지로안자겨시거회환상과팔피고고두훈후문득스미로새미를너여노하니바로귀비의머리의나라안자뵈호의두눈을요아먹으니귀미변하야문득황금갓흔여우되거늘³⁵⁾

張國振傳

- ㉖ 그증심이고두용낙하고일진금광이되어바로대명국중에드러가니차시공쥬후원에서꽃을구경하거늘여호일진악풍을지어공쥬를죽여시신을감초고제몸을변하여공쥬되니³⁶⁾

張仁傑傳

- ㉗ 홀연공중으로여진국왕을불러왈네토지그물일상한탄하기로상제계압서금척이녀기사여장하나를주시난니...중략...언파의창금을들어일사에두다리니머리색야지며전신이땅의씨러지거늘두장슈춧차달여와살펴보니꼬리아홉가지여호라³⁷⁾
- ㉘ 황제드르시고늘니더전의드러가며황후를부르니황후난디답이없고리는전각의날나다니다가황제드러오물보고황후침방으로드러가거늘황제경이하여뒤를떨어가보니귀가황후머리의안저황후두눈늘세니한마리구미호가방중의느러지거늘³⁸⁾

玄氏兩雄雙麟記

- ㉙ 형이 7만이얼굴을변하여주소제되어시랑부부를속이더쥬공부분도전원이아지못하고³⁹⁾
- ㉚ 월천으로더부르경시의니르러요약을삼켜일기결님의너재되어적을시십자가저근집에머무르니⁴⁰⁾
- ㉛ 이에변용단을삼켜현상갓흔총지되니이에는조를주고일필준마를스타고총지의의특세도를공고히우며⁴¹⁾

33)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一(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6), p. 189.

34) 朴晷義 編註, 原本 韓國古典小說集成(宣明文化社, 1985), p. 310.

35) 筆寫本, 古典說全集 6, (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p. 184.

36) 活字本, 古典小說全集七(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6), p. 417.

37) 筆寫本, 古典小說6(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pp. 49~64.

38) 앞의 책, pp. 93~94.

39) 古典小說I(서울: 民族文化社 영인, 1983), p. 75.

40) 앞의 책, p. 61.

41) 앞의 책, p. 73.

이상에서 抽出한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며 그 樣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찌기 變身說話에 관심을 가졌던 李相日은 변신의 樣相分析에서 固定, 循環, 永久, 回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양상을 논하고 있다.⁴²⁾ 필자는 그것을 참고 하면서 上記의 변신모티브들을 變身體系面에서 固定變身과 循環變身, 變身の 程度面에서 完全變身과 部分變身, 變身主體者의 能動性 有無面에서 自力變身과 他力變身으로 나누고자 한다.

金圓傳의 變身모티브에서, 金圓이 수박형태의 모습에서 그 겹질은 벗고 完人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야기가 종결되기 때문에 固定變身이며 「수박」인간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完全變身이다. 한편, 金圓傳의 모티브 ②에서 처럼 「인간」수박」인간」의 변신양상은 인간이 다른 형태로 전이되었다가 다시 本體化하였기 때문에 循環變身이며, 朴氏傳의 경우와 같이 醜女가 美人이 되었다는 것을 신체의 일부 즉, 얼굴 모습만의 변모이기 때문에 部分變身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전이를 朴氏 스스로 도모한 것이 아닌 父親의 神異力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他力變身인데 반하여, 李華傳에서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한 예는 스스로 변신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自力變身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하에서 변신모티브들의 변신 양상을 표로서 종합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變身樣相對比表

작 품 명	연번	전 이 양 상	능동성유무	변신체계	변신정도
金圓傳	①	수박 > 인간	타력변신	고정변신	완전변신
	②	인간 > 수박 > 인간	자력변신	순환변신	〃
金鈴傳	③	방울 > 인간	타력변신	고정변신	완전변신
金牛太子傳	④	아이 > 송아지	타력변신	고정변신	완전변신
	⑤	송아지 > 아이	〃	〃	〃
朴氏傳	⑥	추녀 > 미녀	타력변신	고정변신	부분변신
三者願從記	⑦	인간 > 대망 > 인간 > 대망	타력변신	고정변신	완전변신

42) 李相日, (앞의 논문), pp. 43~57 참조.

田禹治田	⑧	전우치>잣나무>전우치	자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⑨	병조각>전우치>병조각	타력변신	〃	〃
	⑩	전우치>왕가>전우치	타력변신	〃	〃
	⑪	완인>불구>완인	타력변신	〃	부분변신
	⑫	죽자>인간>죽자	〃	〃	완전변신
	⑬	전우치>솔개>전우치	자력변신	〃	〃
	⑭	나뭇잎>신병>나뭇잎	타력변신	〃	〃
	⑮	전우치>왕연회>전우치	자력변신	〃	〃
	⑯	왕연회>구미호>왕연회	타력변신	〃	〃
	⑰	그림>사람>그림	〃	〃	〃
	⑱	오씨부인>대망>오씨부인	〃	〃	〃
	⑲	정씨>타인	〃	고정변신	〃
	⑳	용담>소>백룡>용담	〃	순환변신	〃
		우치>범>청룡>우치	〃	〃	〃
	㉑	우치>보라매>우치	자력변신	〃	〃
	㉒	우치>해동청>갈범>우치	〃	〃	〃
		화담>수리>청사자>화담	〃	〃	〃
洪吉童傳	㉓	초인>길동>초인	타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荊山白玉	㉔	추녀>미녀	타력변신	고정변신	부분변신
權益重傳	㉕	초인>인간>초인	타력변신	고정변신	완전변신
雍固執傳	㉖	초인>인간>초인	타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李華傳	㉗	백호>인간>백호	자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張國振傳	㉘	여우>인간>여우	자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張人傑傳	㉙	여우>인간>여우	자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㉚	여우>인간>여우	자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玄氏兩雄	㉛	형애>주부>형애	타력변신	순환변신	완전변신
雙麟記	㉜	형애>미인>형애	〃	〃	〃
	㉝	월청>현수문>월청	자력변신	〃	〃

2. 變身모티브의 類型

變身이란 용어가 說話研究家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설화의 유형분류에서이다. 즉 설화를 유형적으로 분류할 때, 그 下位의 유형설정에서 변신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설화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 變身譚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張德順은 동물화 인간, 동물화 식물, 인간화 인간, 인간화 식물, 인간화 동물, 인간화석, 물건화 귀신, 물건화 동물, 물건화 식물, 물건화 인간, 식물화 인간 등으로 분류하였다.⁴²⁾ 李相日은 인간변신형, 동물변신형, 광물변신형, 식물변신형, 정령변신형 등으로 類型化하고 있다.⁴³⁾

이상의 분류들은 다같이 形態(身體)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였으되, 前者는 本體와 變身體를 포괄한 것이고 後者는 본체만을 중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兩者는 형태에 초점을 두었을 뿐 변신의 양상이나 내적 의미 등을 고려한 분류라고는 볼 수 없다.

變身이 형태의 전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므로 유형을 본체나 변신체의 모습만을 중심으로 한 분류는 단순성을 면하기 어려울뿐더러 變身譚의 개괄적인 파악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같은 뱀의 변신이라 할지라도 본체가 자연적인 뱀이 있는가 하면, 人體에서 태어난 뱀이 있고, 고정변신을 하는가 하면 순환변신도 하고, 자력변신인 경우와 타력변신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차이에 따라 변신의 목적이나 그 의미 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本體나 變身體의 외형적 모습에 따른 분류보다는 변신의 양상이나 의미 파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유형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變身主體者의 변신능력 및 자의성 유무, 변신과정상의 양상, 변신체계, 변신동기 등을 감안하여, 遁甲型, 脫殼型, 捉呪型, 變生型, 化石型 등 5개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⁴⁴⁾ 각 유형의 특징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 출판부 1981), pp. 34~35.

43) 李相日, 앞의 논문, p. 52.

44) 民譚의 모티브분류에서 遁甲(동물둔갑, 인간둔갑), 捉呪, 脫身, 化身(化石)으로 분류한 바 있다. [張德順外 3人共著,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81), p. 58] 본고의 분류도 이것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가. 遁甲型: 變身主體者가 能動的이든 受動的이든 자의에 따라 변신을 행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능동적 변신일 때, 變身體가 되었다가 의도하는 바가 성취되면 本體化하는 循環變身이 일반적이나 變身에 이용된 物(呪物)이 없어졌거나 破禁制하였을 때에는 고정변신을 한다. 그리고 변신의 의도나 목적이 긍정적이면 목적을 이룩한 다음 본체로 회귀하는데 반하여 그것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실패하고 他意에 의해서 本體化한다. 한편 受動的 變身에서⁴⁵⁾, 변신주체자는 변신된 상태에서 고정되기를 원하지만 변신의도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自意的 意思와는 관계없이 본체로 회귀한다.

나. 脫殼型: 변신주체자의 誕生形態가 非正常人이나 異物로, 뒤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허물이나 껍질을 벗고 人間 또는 正常人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탈각 때 天上人 또는 超越의 人物의 힘을 비는 경우가 많고 변신주체자가 天上의 存在의 下降일 때에는 自力에 의한 탈각을 한다. 破禁制를 하지 않는 한 탈각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固定變身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脫殼이 인간적 존재 가치 획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捉呪型: 변신주체자의 변신의사와는 관계 없이 神의인 存在나 道術力을 가진 자, 또는 呪物에 의하여 변신당하는 他力變身이 이에 해당한다. 변신주체자가 他意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변신주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변신주체자가 변신을 당한 후 改過遷善하였을 때에는 本體로 회귀하는 순환변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신된 상태에서 고정된다. 한편 植物이나 無生物이 착주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變身施行者⁴⁶⁾의 補助的 役割을 하기 위한 변신으로 변신의 倫理性과는 관계가 없고 주어진 역할만 끝나면 본체로 회귀한다.

라. 變生型: 변신주체자가 일단 現世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모습으로 還生하는 것을 말한다. 現實界에서 죽은 사람이 죽기 전의 상태(모습)로 되살아나는 再生과는 그 의미가 다르며, 前生譚과 결부된 탄생 또한 現實界에서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變生의 범주 속에 포괄될 수 없다.

마. 化石型: 變身主體者가 죽음과 더불어 石物로 굳어져버리는 경우로 죽

45) 受動的 變身은 남의 힘에 의한 변신이란 점에서 他力變身과 같으나 變身主體者가 변신의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46) 變身施行者란 他者를 변신시키는 행위에 主體를 말한다.

음이 수반된 고정변신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유형적 특징에 의거하여 소설상의 모티브들을 분류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變身모티브의 類型分類

유 형	본 체	해 당 모 티 브
둔 갑 형	인 간	②, ⑧, ⑩, ⑬, ⑮, ⑰, ⑱,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동 물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탈 각 형	인 간	⑥, ⑬, ⑲,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이 물	①, ③, ⑤, ⑦, ⑨, ⑪, ⑫, ⑭, ⑯,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착 주 형	인 간	⑦, ⑪, ⑰, ⑲,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무 생 물	⑨, ⑫, ⑬, ⑭, ⑮, ⑯, ⑰, ⑱,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변 생 형	인 간	④

III. 類型別 敘事的 機能과 意味

소설은 敘事樣式으로 된 이야기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완성된 構造物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요소는 하나도 없고 각 요소들은 제 각기 엄격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構造主義 文學研究家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변신모티브도 이런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인물 행위의 한 양상이요 작품의 主題를 이끌어가는 도구적 장치의 하나로써 그 敘事的 機能 또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각 구조 속에 들어 있는 변신모티브가 작품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그것이 지닌 구조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類型別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遁甲모티브

遁甲型에 해당되는 모티브는 앞의 표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변신주체자의

本體가 인간 및 동물로 양분되어 있다. 먼저 人間遁甲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人間遁甲모티브

人間遁甲모티브는 변신주체가 變身意思를 가지고 自力에 의해서 변신하는 能動型과 變身の 慾求是 간절하지만 스스로 도모하지 못하고 他力에 의해서 변신하는 受動型으로 나누어진다. 前者에 해당되는 모티브는 金圓傳의 ②, 田禹治田의 ⑧, ⑩, ⑬, ⑭, ⑲, ⑳, 玄氏兩雄雙麟記의 ㉓ 등이며, 後者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玄氏兩雄麟記의 ㉑, ㉒ 모티브들이다.

②는 金圓이 妖怪에게 납치된 公主를 구출하기 위한 둔갑이다. 즉 요괴가 거처하는 궁궐 주위에 수십 만의 將卒들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侍女라도 출입시는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金圓은 수박으로 둔갑하고, 공주는 그것을 보에 싸서 궁궐에 들어감으로써 요괴를 退治할 수 있었다. 金圓傳의 핵심적 사건이자 主人公의 指向價値 획득의 중심적 계기가 妖怪退治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결정적 기능을 다한 것이 수박으로의 둔갑이다. ⑧은 田禹治가 자기를 체포하려는 官軍들을 우롱하면서 脫走하기 위하여 부린 둔갑술인데,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道術力 과시와 더불어 權力層 人物들로 하여금 힘의 限界를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⑩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권력층과 결탁하며 無辜한 백성에게 그 누명을 씌움으로써 죽음을 당하게 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쓴 둔갑술이며, ⑬은 함경도가달산에 준동한 匪賊을 탐지하기 위하여 둔갑한 것이다. 그리고 ⑭은 집권층 인물 중에서도 가장 간악한 史部尚書 完연회를 응징하기 위해서이고, ⑲은 徐花譚의 術力에 한계를 느낀 田禹治가 도주의 방편으로, ⑳는 田禹治의 遁甲力을 저지하려는 徐花譚과 벌린 爭術競合모티브이다. 한편, ㉓은 간악한 妖僧인 월청이 왕의 총애를 받고 景文을 죽이기 위한 트릭으로 쓴 둔갑이다.

이상의 遁甲力을 지닌 인물들 중에서 金圓이 神話의 人物이라면, 田禹治, 月淸, 徐花譚 등은 敍事文學에서 凡稱되고 있는 道上이다. 金圓은 그의 誕生形態가 朱蒙이나 脫解의 卵生과 同軌이고 그의 둔갑능력 또한 先天的이란 점에서 神話의 人物의 小說的 受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田禹治, 月淸, 徐花譚 등은 그 術力이 선천적이 아닌 깊은 산속에 은거하면서 受得한 後天

의이고 인물됨은 世俗의이지만 부린 術은 道術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道術이라고 하였을 때의 道術은 超自然的인 異術을 의미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술은 道에 입각한 術이다. 그러나 그것이 私利私慾에 치우치거나 邪惡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道術이 아닌 幻術이다. 이런 점에서 ⑧, ⑩, ⑬, ⑮, ⑳ (徐花譚의 遁甲術)은 道術이고, ㉑, ㉒(田禹治의 遁甲術), ㉓은 幻術이다. 한편 도술적 변신술은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환술적 변신술은 변신목적이 부정적 성격 때문에 실패한다. 前者에 해당되는 모티브들은 목적인 바를 성취하는 遁甲成功譚이라면, 後者에 해당되는 모티브들은 遁甲失敗譚이다.

다음으로 變身慾求는 간절하지만 自力으로는 변신하지 못하고 他力에 의해서 변신하는 受動的 둔갑모티브를 살펴보면,

玄氏兩雄雙麟記에서, 景文을 사모한 형애가 경문의 妻인 주부인으로 둔갑하여 그를 쫓아내고 주부인 행세를 한 ㉔, 그것이 실패하자 다시 수문을 유혹하기 위하여 美人으로 둔갑한 ㉕모티브들이다. 형애는 둔갑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妖僧인 월청의 도움을 얻었고, 그의 행위가 反倫理的인 것이기 때문에 他意에 의해서 本體化된다. 이것은 變身の 倫理性과도 관련된 것으로 앞서 말한 幻術과 그 軌를 같이 한다.

2) 動物遁甲모티브

李華傳, 張國振傳, 張仁傑傳 등에 수용된 ㉖, ㉗, ㉘, ㉙의 여우 인간둔갑모티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李華傳과 張仁傑傳에 등장하는 여우는 한 고을을 황폐화시킬 정도의 邪惡한 존재들인데, 主人公에 의해서 본체가 탄로나 쫓겨나게 되자 天子의 妃나 적국의 女將帥로 둔갑하여 주인공을 죽이려 하는 끈질긴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張國振傳의 여우는 敵將의 사주에 의해서 보내진 동물로 주인공을 살해하기 위해 公主를 죽이고 공주 행세를 하는 포악한 동물이다.

여우가 능동적으로 인간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여우는 여우로서의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자유로이 遁甲할 수 있다는 古代人들의 사고에서 형상화된

것이다.⁴⁷⁾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하여 人間事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광포된 說話로서 口傳되고 있는데, 소설상의 그것도 옛날부터 형성되어온 여우에 대한 인간들의 惡感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바는 이러한 여우의 인간둔갑을 통하여 주인공의 英雄性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인공은 여우를 退治함으로써 자기의 指向價値 획득은 물론, 英雄的 人物로 각광을 받는다는 것이다. 英雄小說로 분류되고 있는 張國振傳을 보면, 달마국왕과 백운도사는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몇 차례나 전쟁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張國振에 의해서 실패한다. 이에 마지막으로 쓴 것이 여우의 인간둔갑이다. 그러나 그것마저 張國振에 의해서 退治당하자 패배를 자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의 可視的 示顯을 여우의 퇴치에 두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한편 李華傳과 張仁傑傳의 경우에도, 주인공이 없었다라면 여우의 作亂에 의해 한 고을이 폐허화되었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國運까지 흔들릴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주인공이 극복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영웅성 부각에 여우둔갑모티브 수용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脱殼모티브

脱殼型에 해당되는 모티브는 앞의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박모습으로 탄생한 金圓이 껍질을 벗고 美男子가 되는 ①, 방울로 탄생하여 뒤에 미인이 된 金鈴傳의 ③, 송아지로 변생하였다가 허물을 벗는 金牛太子傳의 ⑤, 醜女가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는 朴氏傳의 ⑥, 荊山白玉의 ⑭, 鄭氏女로 변신한 전 우치전의 ⑰ 모티브 등이다.

이들은 다 같이 脱殼 즉 변신의 욕구는 간절하였으나 自力으로 행하지 못하고 他者의 힘에 의한 受動的 變身이다. ①, ③, ⑤, ⑭의 모티브는 天上의 存在에 의해서, ⑥은 神仙的 존재인 道士에 의해서, ⑰는 道術力을 지닌 인물에 의해서 허물을 벗는다.

47) 太子廣記, 卷第447, 說狐에 「狐五十歲, 能變化爲神巫, 百歲爲美女爲神巫, 或爲丈夫與女人交接, 能知千里外事, 善蠱魅使人迷惑失智, 千歲即與天通爲天狐」라고 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變身慾求를 지닌 자가 他力에 의해서 탈각되었다는 것은 욕구가 충족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탈각은 강한 윤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變身된 상태에서 더 이상 변신하지 않는다.

異物이나 醜物 또는 뜻하지 않은 誕生障礙로 인하여 艱難苦楚를 겪었던 金圓, 金鈴, 朴氏, 王草玉, 金牛太子 등은 비록 그들이 허물을 벗고자 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안했지만 항상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仙官이나 仙女 또는 神異力을 지닌 인물에 의하여 完人이 되고 인간적 구실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存在價値를 획득한 것이다. ⑬의 모티브도 처녀가 過年하도록 出嫁하지 못한 채 시름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試練過程으로 볼 수 있고 異物이나 醜物로 인하여 苦難을 겪는 인물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田禹治에 의해서 鄭氏女로 바뀌므로써 그의 運命은 一新되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脫殼의 主體者는 탈각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固定變身の 양상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脫殼이 救援의 意味를 지님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적 의미는 바로 人間的 '存在價値'의 획득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형태의 전이와 더불어 상황의 변화까지도 동시에 가져 온 것이다. 金圓은 가족의 歡待는 물론 귀족적 영웅으로서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金鈴은 王의 養女가 되었으며, 朴氏와 王草玉은 비로소 남편과 靈雨의 樂을 누릴 수 있었고, 金牛太子는 國王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非正常的인 誕生→試練→脫殼→存在價値獲得이라는 공통된 삶의 過程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첨가해 둘 것은 탈각할 때 탈각사실을 客觀化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변신된 사실을 보호자에게 啓示 내지 제3의 인물에게 알려주거나 허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급격한 상황의 변화에 同-人임을 증명하려는 형식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金鈴과 王草玉은 仙人의 現夢을 통하여 계시하는 쪽이고, 金圓과 朴氏는 증거물을 남기는 쪽이다.

3. 捉呪모티브

앞에서 제시된 표와 같이 捉呪의 대상이 된 主體者는 人間과 無生物로 나

누어진다. 즉 인간이 자기가 지은 惡行 때문에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신당하는 경우와 變身施行者의 補助의 수단으로서 無生物이 人間化되는 경우가 그것인데, 먼저 人間捉呪모티브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人間이 상대의 呪術力에 걸려 변신당하는 것으로 三者願從記 ⑦, 田禹治傳의 ⑪, ⑬, ⑮, ⑰ 등이었다. ⑦은 同門修學한 세 사람 중의 한 명이 어릴 때부터 지닌 物慾을 버리지 못하자 그를 懲治할 목적으로 玉帝가 뱀으로 변신시킨 것이고, ⑪은 아무런 생산적 수단도 없는 자들이 부모의 덕으로 환락적인 생활을 하면서 無禮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징이고, ⑮은 前後事情도 알지 못한 채 질투심만으로 그림을 찢었기 때문에, ⑰은 田禹治와 龍譚 間에 서로가 주술을 건 일종의 呪術競合모티브이다.

人間이 本意 아니게 변신당한다는 것은 그가 징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단 ⑰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이다) 그런데 징벌의 의미로 변신시켰다가 그 기간이 끝나거나 改過遷善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本體化시키는 循環變身이 일반적이다. ⑪, ⑬, ⑮, ⑰ 모티브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다만 三者願從記의 주인공은 循環的 固定變身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物慾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變身體로 回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人間捉呪모티브들은, 不正한 인물에 대한 實現的 制禦의 힘을 갖지 못한 민중들의 空想心理에서 捉呪型說話들이 創作, 口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小說上에도 수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무생물이 生人化되는 모티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無生物이 인간의 呪力에 의하여 생인화되는 것으로는 田禹治傳의 병조각과 그림, 나뭇잎, 洪吉童傳, 權益重傳, 雍固執傳의 草人이 人間化되는 모티브들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田禹治가 들어간 병을 깨뜨리자 병조각이 禹治로 변하여 자기가 禹治라고 우기는 ⑨, 國王 앞에 잡혀간 吉童이 草人 일곱 개를 자신과 同人으로 만들어 제각기 吉童이라고 주장하는 ⑳의 모티브들은 일종의 分身術이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구조상 갈등해결의 중요한 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田禹治傳에서, 田禹治가 백성의 桎梏은 외면한 채 私利私慾에만 급급한 執權層 人物들의 應懲과 現實的 非理 剔抉을 위한 투쟁을 펼치자 朝廷

에서는 그의 체포에 國力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전우치의 도술력에 결국 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자, 禹治를 體制內로 끌어들이는 회유책을 쓰게 되고 체제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우치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병조각 分身術이다. 洪吉童傳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吉童이 身分的 制約에 불만을 품고 家出한 후 活貧黨의 괴수가 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들을 탈취하여 貧民을 구제하는 등 현실적 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公權力은 완전히 실추된다. 뿐만 아니라 온갖 計巧를 써서 근근히 잡아들인 吉童이 草人을 生人化시켜 國王을 회롱하고 도주하자 정부에서는 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길동의 요구대로 兵曹判書를 除援함으로써 긴장된 갈등은 해소되었던 것이다.

한편, 權益重傳, 雍固執傳의 착주모티브에서 前者는 玉帝, 後者는 학대사에 의해서 창출된 假人으로서 眞, 假 다름이 벌여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權益重傳의 경우는 李小姐와의 再會의 기회 마련에, 雍固執傳에서는 排佛論者이자 惡德守錢奴인 옹고집을 懲治하기 위하여 설정된 모티브이다. 특히 雍固執傳은 축적한 富를 바탕으로 갖가지 惡行을 일삼는 朝鮮朝後期の 鄉班을 응징하는 데 변신모티브 수용의 주된 의미가 있었다. 이 점은 바로 양반의 횡포에 대한 민중들의 응징욕구를 捉呪라는 呪術力에 의해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無生物을 生人化시키는 모티브에서 草人의 등장은 거기에 상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짚에는 殼靈이 깃들어 있고, 그 곡령은 呪力을 발휘하는 것으로 古代人들은 믿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産俗에서 産室 바닥에 짚을 깔거나 아니면 짚단을 한 쪽 귀퉁이에 세워 놓는 것이라든지, 또는 路祭를 지낼 때, 路上에 먼저 짚을 깔고 그위에 祭物을 排設하는 등의 習俗을 보아 짐작이 간다.⁴⁸⁾ 이처럼 벼짚도 정령적인 존재의 하나로서 古代부터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 모습으로 만들고 거기에 符籙을 붙이면 生人이 될 수 있다는 思考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48)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3), p. 205.

4. 變生모티브

變生에 해당되는 모티브는 金牛太子傳의 ④뿐이다. 金牛太子는 파사국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자식을 갖지 못한 두 王后(정덕후, 승경후)의 시기 및 흉계로 암소에게 먹히게 되고 뒤에 송아지로 變生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金牛太子의 變生이 作品自體가 佛敎小說인 점을 감안한다면, 主人公의 前生 罪業에 대한 現實界에서의 苦行을 구체화하면서, 그것을 온갖 貪慾에 젖어 惡行을 하고 있는 世俗的 人間들의 醜惡相과 결부시켜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人間이 송아지로 變生하였다는 것은 불교의 輪廻說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超經驗의이고 超合理的인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法力에 의해서 행하여진다고 하여 人間의 경험적 사고로는 파악하기 힘든 종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輪廻前生說이다.

宇宙間에 森森羅羅한 一體萬有은 서로 相依相資의 연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獨立獨有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佛敎의 宇宙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宇宙의 存在들은 三道六界에서 善因善果, 惡因惡果라는 因果의 법칙아래 輪廻轉生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Jataka 前生譚을 다른 佛敎經典은 불도의 六道積善이 중요한 계기가 되며 仙人, 人間, 動物 등으로 回遊를 거듭한다는 이야기는 윤회사상을 說話의으로 形象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金牛太子傳의 變生모티브도 비록 그것이 前生譚을 다룬 것이 아닌 현실계에서 示顯된 것이라 할지라도 前生의 罪業에 대한 現實界에서의 苦行이라는 惡因惡果의 因果律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이상의 논의에서 朝鮮朝小說에 수용된 變身모티브들의 樣相, 敍事的 機能과 意味를 類型別로 일별하여 보았다. 本文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첫째, 變身모티브가 수용된 작품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金圓傳, 金鈴傳, 金牛太子傳, 朴氏傳, 三者願從記, 荊山白玉, 權益重傳, 洪吉童傳, 李華傳, 張國振傳, 玄氏兩雄雙麟記, 張仁傑傳 등 13편이며, 거기에 수용된 모티브는 33개이다.

둘째, 變身樣相을 變身體系, 變身程度, 變身主體者의 能動性 有無 등의 側面에서 살펴본 결과, 固定變身이 21%, 循環變身이 79%, 完全變身이 91%, 部分變身이 9%, 他力變身이 67%, 自力變身이 33%로 나타났다.

셋째, 變身모티브를 變身主體者의 變身能力 및 自意性 有無, 變身過程의 樣相 變身體系 變身動機 등을 감안하여 그 類型을 遁甲型, 脫殼型, 捉呪型, 變生型, 化石型으로 나눈 결과, 遁甲型이 42%, 脫殼型이 18%, 捉呪型이 33%, 變生型이 0.3% 나타났다.

넷째, 變身모티브의 敘事的 機能 및 意味를 類型別로 살펴본 결과,

1. 遁甲型: 變身主體者의 自意에 따른 變身이며, 志向하는 바의 목적성취를 위한 變身이다. 그러나 道術的 遁甲은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幻術的 遁甲은 실패로 끝난다. 이것은 변신의 윤리성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한편 동물의 인간둔갑은 여우의 둔갑뿐인데 여우의 邪惡性을 내세워 주인공의 英雄性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인간이 存在領域이 동물에 의해서 침범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2. 脫殼型: 脫殼의 主體者는 固定變身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탈각이 救援의 意味 즉, 人間의 存在價値 획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非正常的 誕生→試練→脫殼→存在價値獲得」이라는 공통의 삶의 과정을 밟고 있다.

3. 捉呪型: 自意的 意思와는 관계 없이 상대의 呪力에 의해서 變身당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懲罰의 意味를 지닌다. 이것은 부정한 인물에 대한 현실적 제어의 힘을 갖지 못한 민중들의 空想心理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無生物이 人間化되는 모티브들은 變身施行者의 補助者로 등장하고 있으며, 변신시행자의 도술력 과시, 적대자의 退治 등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變生型: 主人公의 前生罪業에 따른 현실계의 苦行을 구체화하면서 世俗的 人間들의 醜惡相을 보이는데 있다.